



# PHI News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식

2010년 8월 16일  
(제2호)

137-8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9-3 인산빌딩 302호 070-8658-1848, F 02-581-0339, <http://health.re.kr>

## 더운 여름, 더 뜨거운 가을을 준비하며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다”

회원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또 길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월초까지 계속 덥겠고, 비도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이런 찜통 더위가 언제쯤 물러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까요?

이런 더운 날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지금보다 더 뜨거운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보건의료의 현실을 극복하고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안 보건의료’를 찾아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회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사진 한 장 붙입니다. 이런 산속 계곡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좀 시원해지지 않으셨나요?



**PHI 칼럼**

**MB 집권 후반기의 모습은?**

김창보 연구실장

최근 ‘왕의 남자’ 이재오가 정치권에 돌아왔다. 그는 명성대로 였다. 돌아오자마자 ‘특임장관’이라는, 그야말로 ‘특임’을 맡는 정권의 핵심 자리로 돌아왔다. 또한 진수희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내정되었다. 진 의원 역시 이번 정권의 일등공신인데다 이재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8월 8일 이루어진 개각은 한마디로 MB의 친위내각 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MB 정부와 한나라당이 참패했던 분위기를 7. 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반전시키며 MB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막고 4대강 사업이나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각은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린 개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런데 곧 정기국회가 열린다. 국민들은 이제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기대와 관심 보다는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저질 정치쇼’를 강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눈살을 찌푸린다. 게다가 민생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자와 기업을 위하는, 국민의 허리를 휘게할 정책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당장 보건의료 관련 분야만 봐도 그렇다. 이번 국회에서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법률 뿐만 아니

라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지위를 위협하는 법률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 정부의 예산도 다루어질텐데, 특히 ‘4대강 예산’과 ‘복지예산’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 법률 저지와 함께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라는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새롭게 구성된 내각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임총리를 비롯한 신임장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MB정부 집권 후반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개각을 통해 지명된 인사의 면면이 이런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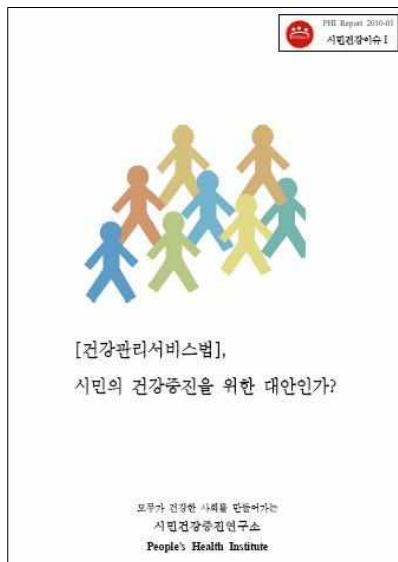
MB정부의 집권 후반, 올해 국회를 보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다.

<b>〈PHI News 2호 안내〉</b>	
PHI 칼럼 -----	2쪽
〈시민건강이슈 1호〉 소개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	3쪽
강좌안내: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며 --	4쪽
연구소 소식 -----	5쪽
후원 안내 -----	6쪽

##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시민건강이슈 1호’ 발간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폐기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 촉구



우리 연구소는 8월 5일, 지난 5월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시민건강이슈 1호’)를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요약문과 함께 ‘Q & A’를 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MB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던 ‘건강관리사업’을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로 평가했다. MB정부가 이 정책을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2조원 내외의 시장 형성과 3만 8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경제산업정책의 일환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장 형성을 위하여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주민’에서 ‘개인’별로 구매되는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서

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시켜 서비스의 포괄성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점에서 시민사회가 ‘의료서비스민영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 연구소는 검토 결과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자칫 미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되면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 경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과 국민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존 법률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폐기하고 ▲보건지소의 확충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건강관리사업을 확대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한 포괄적 1차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접근을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제안했다.

※ 보고서의 전문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홈페이지(<http://health.re.kr>) 자료마당 - 문서자료실에서

<<강좌 안내>>

#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다”

9월 30일 개강, 8주 기획강좌로 진행  
광주 등 지방순회강좌도 준비중

우리 연구소는 상반기 ‘건강세상을 향한 제4기 보건의료 정책 과정’과 ‘건강불평등의 정치경제학’의 기획강좌에 이어 9월 30일부터 ‘대안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다’는 제목의 기획강좌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강좌는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대안적 체계를 모색하는 여러 시도와 노력을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강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와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연구자와 대학생, 대학원생 들에게 새로운 보건의료의 대안을 찾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9월말 서울에서 시작하여 광주 등 지방에서도 순회 강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강좌 안내

- 일시 : 2010년 9월 30일(목) ~ 11월 18일(목), 총 8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미정 (추후 공고)
- 정원 : 선착순 40명 / ○ 수강료 : 15만원 (일반인 기준) ※ 회원 및 학생 할인
- 신청문의 : 070-8658-1848 (담당 : 서상희 교육팀장)
- 강의 프로그램

일정	강의 주제	강사
9월 30일	대안 보건의료를 찾아서 - 한국 의료의 현실	김창엽 연구소 소장
10월 7일	영국 NHS에서 배운다	이창곤 한겨레 기자
10월 14일	미국과 캐나다의 보건의료, 같은 뿌리 다른 현실	정혜주 고려대 교수
10월 21일	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서비스에 도전하다	최혁진 원주의료생협
10월 28일	건강도시는 대안 보건의료가 될 수 있는가?	정백근 경상대 교수
11월 4일	노동자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	임준 가천의대 교수
11월 11일	공공성과 공공의료	김창엽 연구소 소장
11월 18일	종합토의	

## 연구소 소식

### ■ ‘모두를 위한 건강’ 시리즈 발간 준비

#### 1. 지역 간 건강불평등

지난 6월 29일 ‘모두를 위한 건강’ 소책자 시리즈 1탄 ‘지역 간 건강불평등’ 연구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에는 김명희 센터장과 손정인 펠로우가 참여합니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중요성, 현황, 대책, 제언의 내용을 담기로 하고 현재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향후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정, 보완한 뒤 출판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 2. 아동의 건강권

지난 7월 28일 ‘모두를 위한 건강’ 소책자 시리즈 2탄 ‘아동 건강권’ 연구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임에는 김명희 센터장과 서상희 팀장, 손정인 펠로우와 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인 전경자 교수가 참여합니다. 2차례의 모임을 가졌는데 ‘아동건강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아동건강의 중요성(답론)과 아동 건강문제의 현황,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3차 모임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건강 현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 ■ “세계 대한의료 탐방” 기획중

우리 연구소는 대한적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시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나라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 2월경 쿠바와 캐나다의 의료제도 탐방으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 ■ “한국사회의 불평등” 연구 공동 참여

우리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한국학장기초연구의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인 “한국사회의 불평등 - 건강과 보건의료”의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1년 6월까지 진행되어 이후 서울대 출판부에 의해 출간될 예정입니다.

### ■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연구

우리 연구소는 공공노조의 의뢰에 따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한국사회 금연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임

지난 7월부터 격주로 공부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조홍준 회원, 최용준 초빙연구위원, 김명희 센터장, 손정인 펠로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연구원 동향

서상희 교육팀장이 지난 7월 3일 화축을 밝혔습니다.

강은정 선생이 노동부 디딤돌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10월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 ■ 연구소 살림

- 8월 16일 현재 월 회비 약정액 472만원
- 살림이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 회원이거나 후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해요

**우리 연구소는 2006년 창립한 사단법인 연구소입니다.** 올해 초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소장으로 초빙한 것을 비롯하여 연구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의 대안 담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위한 열린 연구공동체입니다.** ‘건강불평등을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의 개혁과 대안담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제의 강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종사자와 학생, 의료인 등과 함께 공부하며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시민의 후원에 의한 기금에 의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과 후원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의 후원 또는 연구비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결과물을 함께 나누며, 한국 사회 보건의료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구소에 납부하시는 후원금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해드립니다.

### ★ 회원가입 문의

전 화 : 070-8658-1848,  
070-8659-1848  
팩 스 : 02-581-0339  
이메일 : [phprc@hanmail.net](mailto:phprc@hanmail.net)

찾아오는 길

